우리의 마음은 무한량이 돼서 바다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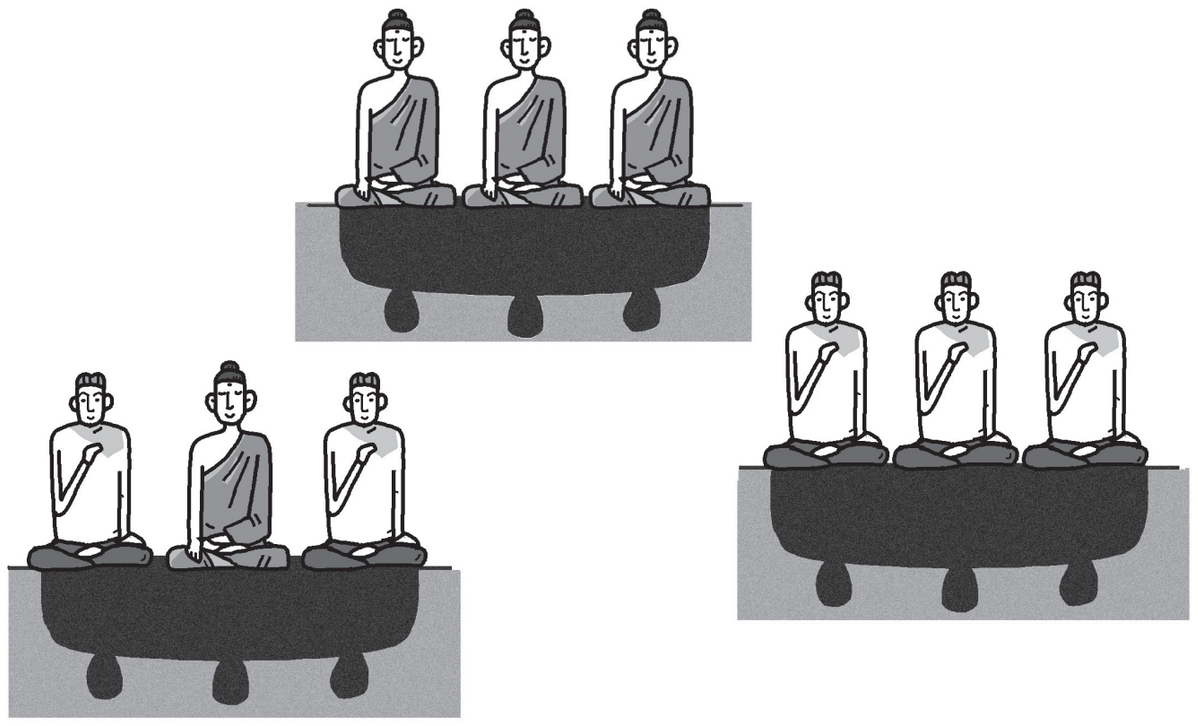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기 지원장 스님이 진리를 너무도 역력하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등한시한다 하더라도 바로 지원장 스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지원장 스님 마음입니다. 비록 모습은 다르나 마음이 어찌 둘이겠습니까. 깨달음의 진리는 하나인 것이지 둘도 아닙니다. 그 깨달음의 진리를 안 스님이라면 바로 부처하고도 둘이 아니요, 내 마음하고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꼭 알아야 하는 문제가 개재돼 있습니다. 자기 주인공은 분명코 있습니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과거의 조상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요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현재 살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인연에 따라서, 가고 오고 행한 그 모든 업식의 차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에 주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던 그 차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주어진 그 자체를 우리가 주인공에다가 되입력해서 업식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을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진정한 참 자기의 소식을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을 믿지도 않고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믿지 않고 등한시하는 겁니다.

부처님 모습이 저기 계십니다만 저 부처님 모습이 바로 각자 자기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과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일체제불의 마음' 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죠? 마음도 둘이 아니요, 모습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해 나가는 마음 자체가 바로 일체제불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못 믿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내가 망했다, 내가 잘했다, 내 자식이다 뭐, 일거일동 '나, 나, 나, 나'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왜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이란 부처님 한 분으로만 계셔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부처님 한 분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법신, 응신, 보신 이렇게 연방 화하면서 이 중생이 원하면 그대로 한마음이 돼서 응해 주시고, 또 저 중생이 원하면 그 소원대로 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주인공에다가 맡겨 놓고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할 때 그 부처님의 마음이 약사보살로 화하게 되죠. 당신 주인공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 결부가 돼서 바로 약사보살이 돼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에 저촉을 받았을 때 '당신만이 이 법에 얽힌 것을 풀 수 있다.' 하고 믿고 거기다가 맡겼을 때는 법신이 바로 한 찰나에 그 마음에 한마음으로 돼 가지고 엉킨 거를 다 풀어 주시고 한 찰나에 나가신다 이겁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건 줄 아십니까. 이 세상 만물만생을, 죽은 중생이나 산 중생을 다, 하다못해 곤충 하나까지도 보살피지 않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곤충이 진화할 때도 반드시 부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 주셔서 진화가 됩니다, 진화! 모습이 바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진화할 때는 그 곤충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거기 한마음으로 들어서 지혜가 생기니까 능히 진화될 수 있는 차원이 돼서 진화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길을 걸을 때 저런 나무도 그냥 나무로만 보시죠? 그러나 그 나무 속에는 목신, 즉 나무의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신.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보고 그 속도 다 안단 말입니다. 허영 그냥 저렇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해 주시려면 벌써 그 모습으로 화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부처님 아님이 없고 부처님 모습 아님이 없고 부처님 자리 아님이 없고 부처님 생명 아닌 게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것이 될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를 건지기 위해서 돼지가 됐을 때 돼지 하나만 건지는 게 아닙니다. 돼지 하나면 수십억의 중생들을 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돼지를 건지기 위해서 응신으로 화하셔서 돼지 속에 들어가서 삼 일을 있든 이레를 있든 거기에 물들지 않으시고 그대로 돼지가 화하게 모습을 바꿔 주고 나신다 이겁니다. 돼지뿐만 아닙니다. 그거를 모르시겠걸랑 가정에 어머니니 할머니니 아버지니 할아버지니 이렇게 한 가족이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비유해서 말할 테니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는데, 아내가 부르면 남편이 돼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하면 남편이 됐다가도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 하고 아들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형님!" 하고 부르면 그냥 "그래." 하면서 아들 노릇을 하다 금방 형님이 돼요. 장모가 부르면 금방 사위가 되죠.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름들을 걸림 없이, 불리는 대로 아주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그냥 역할을 잘하고 가죠. 금방 "여보!" 하면 남편 노릇을 여여하게 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노릇을 여여하게 하고 가죠.

그러니 남편 노릇 할 때를 나라고 할 겁니까, 자식 노릇 할 때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노릇 할 때를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부처님께서도 아촉이라는 이름, 아미타라는 이름, 관세음이라는 이름, 지장이라는 이름, 약사보살이라는 이름, 칠성이라는 이름, 독성이라는 이름, 지신이라는 이름, 용신이라는 이름, 보현신이라는 이름 등 뭐, 하고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이름을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 한 분 앞에만 갖다 놓으면 걸리죠? 이것도 해 놓고 저것도 해 놓고, 여기다 놓고 빌어라 저기다 놓고 빌어라 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 놓을 때는 '아이고, 저기 칠성에다 놓지 않아서 우리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명이 짧아지면 어쩌나.' 요렇게 생각이 들죠. 신중단을 해 놓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신중단을 해 놓았으면, 부처님 앞에다만 놓고 거기다 안 놓으면 '이거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많을 것인데 지원장 스님이 그것을 다 면하게 해 주신 겁니다. 요기 놓고 빌어야 하고 조기 놓고 빌어야 하는 걱정 근심을 다 덜어 드렸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시고 이렇게도 화하시고 저렇게도 응하시고, 응신이 되시고 법신이 되시고 보현신이 되셔서 수시로 나투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마음에 부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런다면 원하는 대로 나투어 주실 겁니다. 일체 모든 생명의 근본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체제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여여하게 모든 역할을 하시듯이 부처님도 여여하게, 여러분이 응해 달라는 대로 산신을 찾으면 산신도 되시고 아파서 찾으면 약사도 되시고 또 자식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을 할 때는 바로 용신이 돼 주신다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건 무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은 한량이 없어서 무한량이고 우주간 삼천대천세계에 그 부처님의 마음이 꽉 찼다 이 소립니다. 그 도리를 알면, 여러분 각자 주인공의 그 맛을 알면 맛을 아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비가 와서 빗방울이 다 한 그릇에 들어가도 두드러짐이 없이 한 그릇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무한량이 돼서 바다와 같다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마음을 쓰십시오. 관세음보살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관해서 보고 관해서 듣고 관해서 지켜보고 말

☞ 18면으로 계속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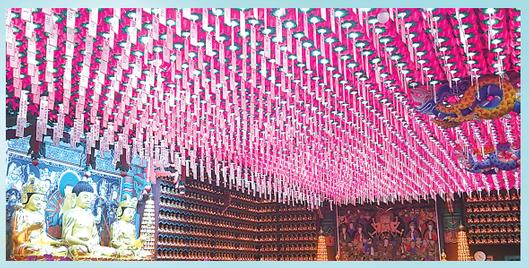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